실속 재테크

증권사 지급결제 서비스 시작

고수익형 CMA 뭐가 괜찮나

증권사가 은행과 마찬가지로 4일부터 소액 지급결제서비스 시작하면서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만으로도 입출금이나 송금, 공과금 납부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증권사들은 고금리에다 편의성이란 무기까지 손에 들고 고객 잡기에 나섰다. '4%대 금리'에 어느 금융사를 이용해도 출금·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겠다는 증권사도 등장했다.

■ 주요 증권사 CMA 서비스 비교 (단위:%)

증권사	연 수익률	서비스
삼성	4.0	CMA 신용카드 사용금액 일부를 고객이 지정하는 펀드에 투자
우리투자	2.5~3.0	우리투자증권 CMA를 급여계좌로 이용하면 0.3%포인트 우대금리 제공
동양종금	2.3~3.3	종금형 CMA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한화	4.2	ATM·CD기 출금 수수료 면제
미래에셋	2.35~2.5	CMA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최대 6만7000원 펀드에 투자
현대	4.1	모든 은행 ATM·CD기 출금·이체 수수료 없음
메리츠종금	5.0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대우	4.5	신규 고객 은행 ATM 수수료 면제
SK	2.6~2.7	공모주 청약 시 우대
하나대투	4.5	주식형 펀드 판매수수료 전액 면제
한국투자	4.2(미정)	CMA 마이너스통장 사용 가능
굿모닝신한	2.5~3.1	신한은행 7185개 지점에서 ATM입출금, 통장정리 가능
하이투자	4.2	신용대출 서비스
HMC투자	4.1	현대카드 M포인트로 주식 펀드 수수료 최고 30% 결제 가능

※ 연수익률은 일정 조건 충족 시 한시적으로 적용됨.

금융사별 서비스 비교 분석 신중히 선택

맡겨진 자금 운용·펀드 연계 확인 필수

우대금리·수수료 면제 등 고객들 유혹

상품이 다양한 만큼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 포인트는 CMA를 기초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는지와 CMA에 맡겨진 자금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는 지를 살펴 보는 것이다.

때문에 펀드 등 다른 투자와의 연계 서비스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이 경우 CMA에 맡겨둔 종잣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곳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증권사 지급결제 본격 개시**=4일부터 소액 지급결제를 시작한 증권사는 현대·미래에셋·대우·삼성·한국투자·우리투자 등 13곳이다.

또 신영증권은 오는 28일, 유진투자증권은 9월 4일, 교보증권은 9월 25일 등 11개 증권사도 순차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실시한다. 동양종금증권은 이미 지난달 초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간은 CMA로 입출금이나 송금 등을 하려면 증권사가 제휴한 은행에서 연계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했다.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급결제를 해결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증권사 계좌만으로도 이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예를들어 아파트 관리비를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동양종금증권 광주본부점 관계자는 "한 달간 운영해 봤지만 전산상에 별 문제가 없었다"며 "고객들은 증권사 계좌만 있어도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돼 한결 편리하다는 반응"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고금리로 유혹**=증권사들은 다시 은행 월급통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은행계좌와 비교할 때 CMA의 매력은 무엇보다 고금리다. 은행 예금통장에서 CMA로 돈이 옮겨가는 '머니무브'가 벌어진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사정이 좀 달라졌다. 올 들어 시중 금리가 급락하면서 최근 CMA 금리도 연 2% 중반까지 내려간 상태다. 그러자 고객 유치를 위해 증권사들이 들고 나온 것은 우대 금리다.

하나대투증권의 경우 5월 말부터 자사 CMA 가입 고객에게 최고 연 4.1%의 고금리를 지급하고 있다. 두 달간만 적용되는 금리라는 조건이 붙었지만 반응이 좋아 9월 말까지 연장했다.

삼성·대우·한화·현대증권 등도 일제히 '4%대 금리'를 내걸고 마케팅 전쟁에 들어갔다. 삼성증권은 신규 고객에만 적용했던 최고 연 4%의 금리를 기존 고객이 은행 연계계좌에서 삼성증권 계좌로 이동할 경우에도 지급하기로 했다.

수수료 면제를 내건 증권사도 많다.우리투자증권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전 금융기관의 현금지급기(CD),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출금할 때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우리금융 계열인 광주·우리·경남은행의 CD·ATM으로 인출 시 기간제한 없이 항시 전액 수수료가 면제된다.

대우증권은 주식·펀드·CMA 등 모든 대우증권 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개인 고객에게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찾고, 이체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신세계 '새로운 매장 오픈했어요' 4일 새로 문을 연 광주신세계백화점 '아이팟 체험매장'에서 고객들이 각종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보고 있다. 신세계는 이날 이밖에도 막스마라, 기비, 라푸마 등 36개 매장을 새로 열거나 새 단장해 재오픈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제공〉

1달러 =1,218원

환율 연중 최저치

환율이 나흘째 하락해 또다시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국내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외국인들의 대규모 주식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환율은 작년 10월 중순 이후 가장 낮은 1,210원 후반대를 나타냈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4.40원 내린 1,21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날보다 4.40원 내린 1,218.00원에 장을 시작한 뒤 1,222.20원까지 고점을 높였으나 장 후반 들어 상승폭을 반납하며 개장가 수준에서 마감했다.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39포인트(0.09%) 오른 1,566.37을 기록하며 4거래일째 상승행진을 이어갔다.

이는 연중 최고치를 다시 경신한 것으로, 종가기준으로 1,567.71로 마감했던 지난해 8월18일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외환보유액 2,375억1천만달러

5개월째 증가

외환보유액이 5개월 연속 늘어나면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사실상 회복했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외환보유액은 2천375억1천만달러로 전월말보다 57억8천만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이 지난 3월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5개월간 359억7천만달러 급증하면서 작년 9월의 2천396억7천만달러에 육박했다.

한은은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증가한 것은 운용수익과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유동성 공급자금 만기도래분 회수, 기타 통화의 강세에 따른 미 달러화 환산액 증가, 국민연금의 통화스와프 만기도래분 4억4천만달러 상환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코스피200지수 연계

光銀 정기예금 출시

광주은행은 5일부터 18일까지 열흘간 코스피 200 지수에 연계한 '더블찬스 정기예금 41호'를 한시 판매한다.

이 상품은 단독가입 상품과 교차가입 상품 등 2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단독가입 상품은 코스피200 지수에 따라 최저 0%(원금보장)에서 최고 연 12.0%를 제공하고 만기지수 결정일까지 기준지수가 장중 1회라도 30% 초과 상승하는 경우 연 4.5%로 확정되는 넉-아웃(Knock-out)형이다.

가입 대상은 제한이 없고 최저 가입 금액은 100만원부터이며 가입 기간은 1년이다.

또 고객이 더블찬스 정기예금과 플러스다모아예금을 50대 50으로 교차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플러스다모아예금은 현재 금리보다 0.5%포인트 높은 연 4.0%의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장필수기자 bungy@